

곡성군, 미래형 교육자치 선정

아이들 교육·마을·학교 연계 목표

풀뿌리 일반·교육자치 협력 강화



곡성군과 곡성교육청이 교육부의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공모사업(이하 '미래교육지구')에 선정돼 특별교부금 3억 원을 지원 받게 됐다. 미래교육지구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의 질적인 도약을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와 교육청가 공동협력센터를 구축해 학교혁신을 선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학교 연계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미래교육지구 공모에는 전국 30여개의 혁신교육지구 중 11개가 최종 선정됐다. 전남에서는 곡성군을 비롯해 총 3개 지자체가 이름을 올렸다.

곡성군은 교육청과 함께 올 3월 곡성미래교육협력센터의 문을 열었다. 센터를 통해 교육부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사업을 추진하며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곡성군은 숲과 강을 활용한 생태교육, 휴먼라이브러리 활용 진로교육, 마을학교 연계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 곡성학습공동체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등 지역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화순군, '2019년 여성지도자 지도력 향상 교육' 실시



화순군은 진도 쏘바치 리조트에서 여성지도자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1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2019년 여성지도자 지도력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순군여성지도자협의회(회장 양경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여성지도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여성지도자 간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리더의 조건 '감성 리더십', 여성리더 맞춤형 건강관리 등 특강과 문화탐방 등을 진행했다. 양경자 화순군여성지도자협의회장은 "2019년 열심히 추진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연말에 여성지도자 워크숍까지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올 한해 함께 노력해주시던 여성단체 회장님들과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에도 화순군에서 여성지도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군여성지도자협의회는 올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단체 연계 농특산물 판매촉진사업, 사랑의 감장김치 담그기 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이웃사랑 나눔 일일차집,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등 여성 권익 신장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화순=박순철 기자

여수특산품, 서울 롯데백화점서 1억 1200만원 매출



여수시가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여수특산품 초대전을 열어 1억 1200만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초대전은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농수특산품 홍보를 위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다.

참여업체는 거문도해풍축염농조합, 웰빙촌친환경영농조합법인, 동백골, 한려영어조합, 나래식품, 서동수산 등 11개 기업이었다.

이들 업체는 해풍축 송편, 돌산갯김치, 유자차, 건홍합, 젓갈, 굴 등 40여 개 품목을 전시·판매했다.

제철을 맞은 유자차와 피홍합, 생굴을 맛볼 수 있는 시식코너, 즉석에서 조리한 거문도 해풍축 씨앗호떡, 꼬막비빔밥이 특히 인기였다.

지난 6일에는 재경여수항우회 회원들이 행사장을 찾아 농수특산품을 홍보하고 참가업체 관계자를 격려했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여수 농수특산품의 인기가 높아진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여수 농수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관측행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수=김도현 기자

나주 봉황면, 희망2020나눔 캠페인 동참...사랑의 온도 높여



연말연시 주민들의 따뜻한 나눔을 통해 나주시 봉황면의 사랑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

봉황면은 지난해에 이어 전라남도가 지난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까지 추진하는 희망2020나눔 캠페인 동참을 통해 각계각층 주민의

성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면은 이번 캠페인 성금 목표액을 지난 해 대비 1%증가한 6백98만2천원으로 설정, 관내 5개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나눔을 독려했다.

이에 주민들은 마을별 자체 목표액을 정하고 소액이지만 정성을 담아 심시일반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추운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연말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8년째 연말 성금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는 용두마을 주민 이재서

씨는 "소액이지만 사랑의 온도답게 온도를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도 어김없이 성금을 기부했다.

중화요리 음식점 서울반점 홍재창 대표도 최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소외된 우리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소중히 쓰였으면 한다"며 100만원을 선뜻 기부했다.

봉황면지역발전협의회(회장 이재섭)도 온정을 보였다. 이재섭 회장은 "이들에게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사랑을 선물하고 싶다"고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해남=서명환 기자

해남자치대학, 연말에는 찾아갑니다

102번째를 맞는 해남자치대학이 연말을 맞아 관내 면사무소로 군민들을 찾아간다.

해남군은 17일부터 19일까지 계곡, 옥천, 복일, 산이, 화일 등 5개면을 찾아 21세기 해남자치대학을 개최한다. 이번 자치대학은 한국건강증진연구소 김남진 박사를 초청해 "비우고 채우는 행복한 건강관리"를 주제로 강의

가 펼쳐진다.

특히 이번 해남자치대학은 군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자치대학이 열리면서 상대적으로 참여기회가 적었던 면지역의 군민을 직접 찾아가 강의를 제공하게 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남진 박사는 한국건강증진연구소 대표로 재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 건강증진

관련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으로 다수의 건강관련 TV방송 출연, 강연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해남자치대학은 군민이 원하는 강의를 직접 찾아가 들려드린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많은 군민이 참석하여 건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군 드림스타트, 가족과 함께 떠나는 '가족힐링캠프'

담양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15일 까지 1박 2일간 보성에서 가족힐링캠프를 실시했다.

드림스타트 가족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힐링캠프는 소통 기회가 적었던 가족들이 나누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보성에서 진행된 캠프에서는 아이와 부모가 마음치유 편지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 뒤 보성 녹차밭 야경을 구경하고, 둘째 날에는 인류의 달 착륙 50주년을 맞이해 천문과학관을 견학했다.

체험활동에 참여한 한 부모는 "그간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

한 활동을 통해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번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